

한국어문법서에서의 조사와 어미의 표기*

배주채**

〈차 례〉

1. 머리말
2. 표기가 문제 되는 원인
3. 표기의 대상
4. 표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
5. 표기의 실제
6. 마무리

[국문초록]

한국어문법서에서는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요소를 잘 표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에 발행된 문법서들조차 조사와 어미의 표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한국어문법서에서 문법요소를 표기할 때 문법요소 자체를 표기해야지 변이형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형태소의 경우 이형태가 아닌 형태소 자체를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문법요소의 표기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문법요소는 한 가지 모양으로만 표기하며 같은 방식으로 교체하는 문법요소들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일관성). 둘째, 문법요소의 교체양상을 정확히 고려하여 표기한다(정확성). 셋째, 적기 쉽고 알아보기 쉬운 표기, 그리고 오해의 가능성이 없는 표기를 지향한다(소통성). 넷째, 표기한 모양이 짧고 단순한 쪽을 지향한다(간결성). 다섯째, 문법요소들끼리 잘 구별되도록 표기한다(변별성).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표기원칙을 세울 수 있다. 이형태 가운데 하나를 대표형으로 정해 표기하되, 장형, 자음 뒤 이형태, 출현환경이 더 보편적인 이형태를 대표형으로 삼는다. 동형인 문법요소가 또 존재하는 경우에는 문법기능을 병기해 구별한다.

한국어문법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검색』에서의 조사와 어미의 표제어 표기는 꽤 훌륭하다. 그러나 표제어에 붙인 일련번호나 각 표제어에 대한 설명에서는 여전히 표기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

* 본 연구는 201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한국어문법, 한국어문법서, 조사, 어미, 대표형, 표기

1. 머리말

한국어에는 적지 않은 수의 조사와 어미가 쓰이고 있으며 그들이 담당하는 문법기능의 비중은 매우 크다. 그래서 한국어문법서에 조사와 어미는 수시로 등장한다. 그러한 조사와 어미를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은지를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최근 5년 사이에 발행된 다음 한국어 문법서들을 주요 자료로 삼는다(출판연도 순). 이들을 각각 <총>, <우>, <한>, <국>으로 약칭한다.

<총> : 구본관 · 이선웅 · 이진호 · 박재연 · 황선엽, 『한국어 문법 총론』 1, 집문당, 2015.

<우> : 고영근 · 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개정판, 집문당, 2018.

<한> : 유현경 · 한재영 · 김홍범 · 이정택 · 김성규 · 강현화 · 구본관 · 이병규 · 황화상 · 이진호,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2018.

<국> : 남기심 · 고영근 · 유현경 · 최형용, 『표준 국어문법론』, 전면개정판, 한국문화사, 2019.

우선 <국>에서 조사와 어미의 표기 사례 하나를 살펴본다.

이들 조사들을 보조사(補助詞)라고 하거니와 ‘은/는’은 대조(對照), ‘만’은 단독, ‘도’는 한 가지임을 뜻한다. ‘마다, 이라도’, 그리고 그 밖의 ‘까지, 조차, 부터, (이)야...’ 등의 보조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독특한 뜻을 보태어 주는 일을 한다. (14쪽)

여기서 ‘이라도’와 ‘(이)야’는 일관성이 없는 표기이다. 둘 다 자음 뒤에서 ‘이’가 있는 형태로, 모음 뒤에서 ‘이’가 없는 형태로 쓰인다는 점에서 교체양

상이 똑같다. 예를 들어 ‘소+라도, 말+이라도’, ‘소+야, 말+이야’와 같이 쓰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둘을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두 조사를 일관성 있게 적는 방법으로는 다음 네 가지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 ① 이라도, 이야
- ② 라도, 야
- ③ (이)라도, (이)야
- ④ 이라도/라도, 이야/야

〈국〉의 『찾아보기』 567쪽에 ‘이라도 14’와 ‘(이)야 14’가 실려 있다(항목 뒤의 번호는 실린 쪽수). 그런데 이 두 조사의 이형태들이 『찾아보기』 567쪽에 ‘(이)라도 77’, 565쪽에 ‘야 70, 74’로도 실려 있다. 즉 이 책에서는 ‘① 이라도’와 ‘③ (이)라도’를 혼용하고 ‘② 야’와 ‘③ (이)야’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찾아보기』에 ‘② 라도’와 ‘① 이야’는 없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표기는 어미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 종결 어미는 문법적으로는 서술, 의문, 청유, 명령 등의 범주로 나뉘지만 한 범주 속에 다시 많은 어미가 있어서 ‘-ㅂ니다, -오, -네, -ㄴ/는다, -아/어’와 같이 말 듣는 사람을 공대하거나 하대하는 높임의 등급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5쪽)
- ‘-(으)르라’는 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심하도록 경계하는 뜻을 나타내며, ‘-군(-구나), -구려’는 비로소 알았다는 뜻, ‘-(으)렴(-(-으)려무나), -구려’는 허락하는 뜻, ‘-(으)마, -(으)ㅁ세, -리다’는 약속하는 뜻을 나타낸다. (15쪽)

위의 두 인용문에서 ‘-오, -(으)르라, -(으)렴, -(으)려무나, -(으)마,

- (으)ㄴ세, -리다'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교체하는 어미들이다. 즉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 '으'로 시작하는 형태로, 'ㄹ'이나 모음 뒤에서 '으'가 없는 형태로 쓰이는 이른바 매개모음어미들이다. 예를 들어 '믿으오(믿-으오), 하오(하-오), 드오(들-오)'와 같이 쓰인다. 그러므로 이들을 표기할 때 모두 '(으)'를 표기하든지 하지 말든지 해야 일관성이 있다.

또 '-ㄴ/는다'는 31쪽에 등장하는 '-는/ㄴ다'와 같은 어미인데도 표기가 서로 다르다. 「찾아보기」에도 이 둘이 따로 등재되어 있다.

조사와 어미의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독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는 문법서들의 「찾아보기」에서도 볼 수 있다. 〈한〉의 「찾아보기」는 해요체의 종결형태인 '-어요'를 다음과 같이 세 항목으로 나누어 신고 있다(692쪽).

-아/어(요) 483

-아(요)/어(요) 491

-아요/어요 481, 486, 488, 496, 501

이들은 본문에서 평서형어미(481, 483쪽), 감탄형어미(486쪽), 의문형어미(488, 491쪽), 명령형어미(496쪽), 청유형어미(501쪽)로 등장한다. 표시하는 서법이 다른 이 다섯 가지 어미를 서로 다른 형태소로 보든 한 형태소의 이 형태들로 보든 관계없이 일단 표기하는 모양은 통일해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표기가 마치 서로 다른 형태소에 대응한다고 오해하는 독자는 그 대응관계의 방정식을 끝내 풀 수 없게 된다. 문법서의 본문에서 표기가 무질서하면 「찾아보기」의 항목들이 뒤엎기는 것은 당연하다.

조사와 어미의 이러한 어지러운 표기는 다른 문법서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표기가 횡행하고 있음을 〈국〉, 〈한〉이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문법서는 연구자용이라기보다 학습자용 또는 일반인용이다. 연구자는 표기가 왔다 갔다 해도 어렵지 않게 저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을 테지

만 학습자나 일반인은 그렇지 않다. 한국어문법 서술에서 조사와 어미를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표기가 문제 되는 원인

1) 언어학의 연구대상과 학문적 소통

언어학이 다른 여러 학문과 같은 점은 연구한 바를 언어로 소통한다는 것이다. 즉 한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언어로 표현하면 다른 연구자가 그것을 언어로 이해함으로써 학문적 소통이 이루어진다.

한편 언어학이 다른 여러 학문과 차이 나는 점은 연구대상이 언어라는 것이다. 언어학은 언어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언어로 소통한다. 이때 언어를 가리키기 위해 다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부딪힌다. 언어를 대상언어와 메타언어로 구별해 인식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연구대상으로서의 언어자료는 대상언어가 되고 그에 대한 학문적 발언은 메타언어로 이루어진다. 이때 메타언어의 숲에 출몰하는 대상언어를 잘 정돈하지 않으면 학문적 소통이 어그러지기 쉽다.

다른 학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학에서도 중요한 학문적 소통은 대부분 문어로 이루어진다. 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대상언어를 따옴표로 묶어 표시한다. 따옴표 안의 언어는 대상언어이고 밖의 언어는 메타언어이다. 한편 한 번에 제시할 대상언어 자료의 양이 많을 때는 대상언어 자료를 독립된 문단으로 구성하여 메타언어와 구별되도록 할 때가 많다. 이와 같이 언어학에서는 대상언어와 메타언어를 표기로써 잘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2) 문법요소의 형태

대상언어의 표기에서 ‘장난감, 어이없다, 몹시 더운 날, 지금 어디야?’ 같

은 말들은 표기로써 그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즉 ‘장난감’이라는 표기는 ‘장난감’이라는 단어만 가리키므로 그 단어를 ‘장난감’으로 표기하면 끝이다. 그런데 조사, 어미, 접사 같은 문법요소들은 형태가 짧고 형태가 동일한 것들도 많아 각각을 구별해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필자가 어떤 문법요소를 ‘이’로만 표기해 놓았을 때 그것이 다음 중 어느 것을 가리킬지 독자는 알 수 없다.

주격조사 : 바라인 분다.

종결어미 : 자네 숨씨가 정말 대단하이.

명사화접미사 : 길이가 짧다.

부사화접미사 : 튼튼이 연습한다.

피동접미사 :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된다.

이때 조사에는 붙임표를 붙이지 않고 어미와 접미사에는 붙임표를 붙이는 관행을 따르면 주격조사 ‘이’와 나머지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미와 접미사들이 모두 똑같이 ‘-이’로 표기되므로 이 표기만 가지고 이들을 서로 구별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나아가 문법요소들은 교체로 인해 형태가 일정치 않은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매개모음어미는 모두 ‘으’로 시작하는 형태와 ‘으’가 없는 형태의 교체를 보인다. 종결어미 ‘-는다’와 ‘-ㄴ다’도 교체 때문에 형태가 꽤 달라 보인다. 가장 이질적인 교체형은 주격조사 ‘이’와 ‘가’일 것이다. 이와 같이 교체가 있는 문법요소들을 어떻게 표기하는지에 따라 그 정체 확인이 어려워지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3. 표기의 대상

1) 달의 비유

문법 서술에서 문법요소 표기의 대상은 당연히 문법요소 자체이다. 문법요소가 그때그때 취하는 형태(발음형태 또는 표기형태)는 표기의 대상이 아니다. 문법요소가 형태소라면 이형태가 아닌 형태소 자체를, 문법요소가 어휘소라면 어형이 아닌 어휘소 자체를 표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문법 서술의 현장에서 무시되는 일이 많다.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에는 태양, 수성, 금성, 지구, 달 등이 있다. 이들은 천체라는 층위에서 대등한 존재들이다.¹⁾ 그렇지만 초승달, 반달, 보름달 등은 이들과 층위가 다르다. 지구 주위를 도는 천체를 달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보름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달의 중력이 지구 중력의 약 6분의 1이라고 기술할 때도 반달의 중력을 거론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천체에 관한 이러한 사실을 언어에 가져와 생각하면 형태소는 달에, 이형태는 초승달, 반달, 보름달 등에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한〉에서 “빨간 장미가 색이 아주 예쁘게 피었다.”라는 문장을 분석한 결과인 “통사 단위” 12개이다(394쪽).

빨강-, -ㄴ, 장미, -가, 색, -이, 아주, 예쁘-, -게, 피-, -었-, -다

여기서 ‘-가’와 ‘-이’는 〈한〉에서 조사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주격조사 ‘이/가’의 두 이형태이다. ‘이/가’는 하나의 “통사 단위”이다. 동일한 “통사 단위”를 ‘장미’ 뒤에서는 ‘-가’로, ‘색’ 뒤에서는 ‘-이’로 서로 다른 모양으로 표기하는 것은 마치 초승달을 보면서 지구 주위를 도는 천체가 초승달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보름달을 보면서 지구에서는 일년 내내 보름달 뒷

1) 이들을 다시 항성, 행성, 위성, 혜성 등으로 나누는 것은 천체의 층위를 여러 하위층위로 세분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세분 이전의 층위에서 이들의 존재가 모두 대등함을 말하고 있다.

면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위의 목록에서 ‘장미, -가, 색, -이’는 다음 넷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장미, -가, 색, -가

장미, -이, 색,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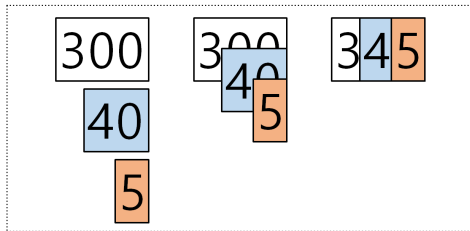
장미, -가/이, 색, -가/이

장미, -이/가, 색, -이/가

2) 아라비아숫자의 비유

문법서 저자들이 ‘장미가’의 문법구조를 예를 들어 ‘장미-이’로 표기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독자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법서 독자의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옳다.

자연수 삼백사십오를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 ‘345’의 구조를 분석적으로 표현하면 ‘3+4+5’가 아닌 ‘300+40+5’가 된다. ‘345’에서 ‘3’은 3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300을 가리킨다. 아라비아숫자 표기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미가’에서 ‘가’로 보이는 것이 실은 주격조사 ‘이/가’라는 사실을 문법서 독자는 익혀야 한다. 그리고 문법서 저자는 ‘장미가, 색이’의 문법구조를 이룰테면 ‘장미-이, 색-이’로 당당하게 표기해야 한다.

3) 문법요소를 변이형으로써 표기한 사례

다음은 <우>의 완료상, 진행상 서술의 일부이다.

- 다음 예는 자동사 ‘앉다’에 ‘-아 있다’가 붙어 완료상을 표시하는 것이다.
[……] 이런 경우, ‘~ 앉고 있다’로 바꾸어서는 그런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아 있다’는 자동사에 붙어 완료상을 표시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431쪽)
- 앞에서 우리는 ‘-어(아) 있다’는 자동사에 붙어 완료상을 표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433쪽)
- ‘-어 있다’는 자동사에만 붙어 완료상만 표시하는 한정된 분포를 보이지만 ‘-고 있다’는 타동사에 붙어 진행상과 완료상을 표시하기도 하고 자동사에 붙어 진행상을 표시하기도 한다. (433~434쪽)

위의 ‘-아 있다’와 ‘-어(아) 있다’와 ‘-어 있다’는 모두 동일한 문법요소들인데도 표기가 서로 다르다.

다음은 <국>에서 시제와 동작상을 설명한 부분이다.

- ① 선어말 어미 ‘-었-’은 사건시가 발화시와 일치하는 현재의 일이나 사건시가 발화시에 후행하는 미래의 일을 표시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 (389쪽)
- ② (20다)의 ‘-았-’은 시제로는 과거이나 동작의 양상으로는 완료이다. (397쪽)

②의 (20다)는 “민지는 벌써 학교에 갔다(가왔다).”라는 예문이며 (20다)의 ‘-았-’이란 ‘가왔다’의 ‘-았-’을 가리킨다. ‘갔다’에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①의 ‘-었-’ 바로 그것이다. 동일한 형태소를 이형태 ‘-었-’으로도 적고 이형태 ‘-았-’으로도 적어서 마치 서로 다른 문법요소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²⁾

요컨대 ‘장미가’와 ‘색이’에 들어 있는 조사를 ‘-가’와 ‘-이’로 구별해 표기하는 것, 완료상 형태를 ‘-아 있다, -어(아) 있다, -어 있다’로 구별해 표기하는 것, 과거시제 어미를 ‘-었-’과 ‘-았-’으로 구별해 표기하는 것은 문법 서술에 어울리지 않는 태도이다. 표기의 대상은 문법요소의 형태가 아니라 문법요소 자체여야 한다. 문법요소를 이형태나 어형으로써 표기한 문법서로 한국어문법을 공부하는 독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해 끝내 본질을 깨닫는 데 이르지 못하고 말 것이다.

4. 표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일관성

일관성의 문제는 한 문법요소를 일관성 있게 표기하는 것과 둘 이상의 문법요소를 일관성 있게 표기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가 문법요소 내의 일관성이라면 후자는 문법요소 간의 일관성이다.

첫째, 한 문법요소는 일관성 있게 한 가지 모양으로 표기해야 한다(문법요소 내의 일관성). <총>은 어미 ‘-어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양으로 표기하고 있다.

- 아라/어라 (200쪽)
- 어라/아라/여라 (201쪽)
- 어라 (201쪽)

또 <총>은 명사형어미 ‘-음’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모양으로 표기하고

2) 굳이 이형태를 표기해야 할 경우라도 이 문법요소를 ‘-았-’으로 표기할 수는 없다. ‘갔다’는 결코 ‘가았다’로 실현되지 않으며 ‘갔다’에 실현된 이형태는 ‘-았-’이 아닌 ‘-ㅌ-’이기 때문이다(가-ㅌ-다).

있다.

-음 (261쪽)

-(으)ㅁ (261쪽)

명사형어미 ‘-음’이 <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표기로 나타난다.³⁾

-음 (56, 188, 330쪽)

-ㅁ/음 (168쪽)

-(으)ㅁ (172, 330쪽)

이상과 같은 한 형태소의 서로 다른 표기들은 마치 이들이 서로 다른 형태소인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둘째, 서로 다른 문법요소라도 같은 방식으로 교체하는 문법요소들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해야 한다(문법요소 간의 일관성). 1장에서 본 <국>의 예들을 다시 보인다.

<국>의 ‘이’계 조사의 두 가지 표기(14쪽)

• 이라도

• (이)야

<국>의 매개모음어미의 두 가지 표기(15쪽)

• -오, -리다

• -(으)르라, -(으)럼, -(으)려무나, -(으)마, -(으)ㅁ세

<총>에는 모음어미들이 다음 네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

3) 한편 <우>에서 ‘-(으)ㄴ, -(으)ㄹ’을 거의 예외 없이 일관성 있게 표기하고 있는 점은 신기한 일이다.

- ① -어라, -어, -어요 (201쪽)
- ② -아라/어라 (200, 201쪽)
- ③ -어서/아서/여서, -어라/아라/여라, -였/왔/였- (200, 201쪽)
- ④ -아/어/여 (201, 203쪽)

①은 이형태 가운데 대표형 하나로만 표기하는 방식이다. ②~④는 이형태들을 나열하는 방식인데 ②는 이형태 둘만, ③, ④는 이형태 셋만 표기하는 방식이다. ③은 어미 첫 음절의 초중성자를 기준으로 ‘어/아/여’의 순서이고 ④는 ‘아/어/여’의 순서이다.

모음어미 표기의 혼란은 다음과 같이 <우>에서도 볼 수 있다.

- 아/어 (102쪽)
- 어/아 (102, 168쪽)
- 어/아서 (168쪽)
- 아/어서 (173쪽)
- 어/아야 (187쪽)
- 어야/아야 (187쪽)
- 였- (167, 176쪽)
- 왔- (174쪽)
- 였/왔- (325쪽)
- (-어/아) 주다/드리다 (105쪽)
- (-어) 주다/드리다 (105쪽)

이러한 혼란은 <우>의 『찾아보기』에도 이어진다(560쪽).

- 어/아도 186
- 어라(감탄형 어미) 107
- 어라/아라 6, 166, 457, 460

-어/아/여서 166, 170, 176, 184, 186

-어/아야 170, 186

-어야 한다 139

-어요/-아요 182

〈한〉에는 조사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이/가, 을/를, 로/으로, 와/과, 란/이란 (296쪽)⁴⁾

아/야, (이)여, (이)시여 (301쪽)

(이)나 (305쪽)

(이)랑 (307쪽)

296쪽의 ‘란/이란’은 ‘(이)여, (이)시여, (이)나, (이)랑’과 교체 양상이 똑같으나 표기 방식이 다르다. 이것을 ‘(이)란’으로 표기하면 일관성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로/으로’도 ‘(으)로’로 표기하는 것이 일관성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기는 470쪽의 여러 어미 ‘-(으)러, -(으)려고, -(으)르수록’ 등과도 일관성이 있다.

나머지 조사 ‘이/가, 을/를, 와/과, 아/야’는 두 형태 가운데 모음으로 시작하는(둘 다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단순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 있게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일관성이다. 이들의 교체 양상을 살펴보면 ‘이/가, 을/를, 아/야’는 자음 뒤의 형태가 앞서 있고 ‘와/과’는 모음 뒤의 형태가 앞서 있다. ‘로/으로’와 ‘란/이란’도 모음 뒤의 형태를 앞세운 방식이다. 한편 ‘로/으로’와 ‘란/이란’은 두 형태 가운데 단순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를 뒤에 두는 점에서 표면적인 일관성을 깨고 있다. 요컨대 이형태를 나열해 표기하는 방식을 따를 때 그 순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한〉에서는 그러한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4) 이들 가운데 ‘로/으로’는 299쪽에서 ‘(으)로’로, 301쪽에서 ‘로’로 표기되어 문법요소 내 일관성을 어기고 있다.

〈한〉에 어미의 비일관적 표기도 나타난다. 『찾아보기』 691쪽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다.

- (으/느)냐 488

- 느냐/(으)냐 445, 451

-냐고 457, 459, 479

동일한 의문형어미를 ‘-(으/느)냐’로 적기도 하고 ‘-느냐/(으)냐’로 적기도 해 일관성을 깨뜨리고 있다. 또 본문의 457, 459, 479쪽에서 이 어미가 간접인용문에서는 ‘고’가 붙은 채로 어미가 된다고 서술하면서 그 형태를 ‘-냐고’로 제시했다. 간접인용문의 ‘-냐고’도 ‘-으냐고, -느냐고’로 교체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표기에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 정확성

문법 서술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조사를 ‘은/는’, ‘을/를’과 같이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자음 뒤에 쓰이는 형태와 모음 뒤에 쓰이는 형태를 나열해 해당 조사를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모음 뒤에 쓰이는 형태로 ‘는’과 ‘를’ 외에 ‘ㄴ’과 ‘ㄹ’도 있다. 그러므로 형태를 나열해 표기하려면 ‘은/는/ㄴ’과 ‘을/를/ㄹ’로 표기해야 정확하다.

예외적으로 〈총〉은 위의 두 조사를 ‘은/는/ㄴ’(197쪽)과, ‘을/를/ㄹ’(197쪽)로 표기해 정확성을 갖추었다. 모음어미도 ‘-어서/아서/여서’와 같은 표기를 주로 제시해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아라/어라, -어서/아서/여서, -었/았/였-(200쪽)

-아라/어라, -었/았/였-, -어라/아라/여라, -아/어/여 (201쪽)

-었/았/였-, -어라, -어, -어요 (201쪽)

-아/어/여 (203쪽)

그러나 이러한 모음어미의 표기가 충분히 정확한 것은 아니다. ‘먹-, 잡-, 하-, 이-(지정사), 기대-’의 활용형 ‘먹어서, 잡아서, 하어서, 이라서, 기대서’에 들어 있는 모음어미를 이형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기하면 ‘-어서 /-아서/-여서/-라서/-서’와 같이 다섯 가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그 어느 것도 다섯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여전히 부정확하다.

〈우〉의 「찾아보기」는 ‘-(으)ㄴ-’, ‘-(으)ㄴ니다’, ‘-(으)ㄴ니다그려’를 항목으로 싣고 있다(559쪽).

-(으)ㄴ- 16, 173, 174, 188, 469

-(으)ㄴ니다 16

-(으)ㄴ니다그려 169

이들이 본문에서는 각각 ‘-ㄴ-’, ‘-ㄴ니다’, ‘-ㄴ니다그려’로 표기되어 있다(다만 469쪽에서만은 ‘-ㄴ-’ 대신 ‘-(으)ㄴ-’으로 표기). 본문에서와 달리 「찾아보기」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매개모음이 없는 형태와 있는 형태를 함께 보여 주려는 친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읍-’, ‘-읍니다’, ‘-읍니다그려’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 대신 ‘-습-’, ‘-습니다’, ‘-습니다그려’라는 형태를 가진다. 매개모음어미가 아닌 것들을 매개모음어미처럼 표기하여 정확성을 잃었다.

〈한〉에서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로 ‘라고’를 제시했다(300쪽). 〈한〉에서 제시한 보조사 ‘(이)나, (이)나마’의 표기(305쪽)를 고려하면 ‘라고’는 ‘(이)라고’로 표기해야 한다. 이 조사는 다음 예문들에서 보듯이 모음 뒤에서는 ‘라고’의 형태로, 자음 뒤에서는 ‘이라고’의 형태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라고’라는 형태의 존재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위의 표기 ‘라고’는 부정확하다.

철수는 “비행기가 30분 연착했어.”라고 말했다.

철수는 “비행기 30분 연착.”이라고 적었다.

얼마나 걸리냐는 물음에 영화는 “한 시간 반 정도”라고 답했다.

얼마나 걸리냐는 물음에 영화는 “한 시간 반.”이라고 답했다.

3) 소통성

소통성(疏通性)은 소통하기 쉬움을 뜻한다. 문어소통에서는 필자가 표기하기 쉽고 독자가 알아보기 쉬움을 말한다. 독자가 알아보기 쉬워야 한다는 쪽이 더 중요하다.

1장에서 예시한 <국>의 ‘-ㄴ/는다’나 ‘-는/ㄴ다’는 독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표기이다. 이들은 ‘-ㄴ다’와 ‘-는다’를 묶어 표기한 것으로 두 형태의 순서만 다르다. 그런데 ‘-ㄴ/는다’는 ‘-ㄴ’과 ‘-는다’를 적은 것으로, ‘-는/ㄴ다’는 ‘-는’과 ‘-ㄴ다’를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묶은 두 형태의 글자 수가 같은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이런 오해는 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불규칙형용사 ‘덥-’의 두 형태 ‘덥-’과 ‘더우-’를 묶은 표기 ‘덥/더우-’는 글자 수를 고려하면 ‘덥우-’와 ‘더우-’를 묶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우>에서는 어미 ‘-어/아서, -어/아야’를 제시하고 있다(170쪽). 이들도 각각 ‘-어’와 ‘-아서’, ‘-어’와 ‘-아야’를 묶은 표기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혹시 문법서의 저자가 독자에게 ‘-ㄴ’과 ‘-는다’, 또는 ‘-어’와 ‘-어서’를 어떻게 같은 형태소에 속한 이형태들로 생각할 수 있느냐고 따지면서 소통의 실패를 독자의 탓으로 돌린다면 독자들은 더 친절한 문법서를 찾아 자리를 뜨게 될 것이다.

문법요소의 표기가 시각적으로 단순하면 독자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한>은 의문형어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488쪽).

- 가. 하십시오체 : -(으)비니까/습니까
 나. 하오체 : -(으)오, -소
 다. 하계체 : -는가/(으)니까, -나
 라. 해라체 : -(으)니, -(으/느)나
 마. 해체 : -아/어, -나, -(으)니까, -(으)르까, -지
 바. 해요체 : -아요/어요, -나요, -(으)니까요, -(으)르까요, -지요

여기서는 빗금과 소괄호를 사용하여 이형태들을 묶어 표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목록은 이러한 기호가 섞여 있는 표기들이 한데 모여 독자의 눈을 어지럽힌다. 소통성의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위의 어미들을 대표형만으로 표기한다면 다음과 같이 더 단출한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다.⁵⁾

- 가. 하십시오체 : -습니까
 나. 하오체 : -으오
 다. 하계체 : -나
 라. 해라체 : -니, -냐
 마. 해체 : -어, -나, -을까, -지
 바. 해요체 : -어요, -나요, -을까요, -지요

4) 간결성

표기한 모양이 이왕이면 간결한 것이 좋다. 긴 것보다 짧은 것이 더 간결하고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더 간결하다. 간결성은 소통성과 비례하는 경우가 있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문법서에서 조사와 어미를 표기하는 방식을 크게 변이형을 나열하는 방식

5) 하계체의 ‘-는가/(으)니까’와 ‘-나’를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로 보아 ‘-나’로 표기한 것이다. 또 해체의 ‘-나, -(으)니까’도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로 보아 ‘-나’로 표기했다. 이들을 한 형태소로 묶을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과 대표형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방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변이형을 나열하는 방식: -면/-으면, -었-/-았-/-였-/-쓰-, 이/가, 은/는/ㄴ
 ② 대표형만 표기하는 방식: -면, -었-, 이, 은

이 두 방식 중 ①보다 ②가 훨씬 간결하다. ①의 ‘-었-/-았-/-였-/-쓰-’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다. 대표형만으로도 해당 형태소를 가리키는 데 문제가 없다면 굳이 ①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②는 체언이나 용언을 표기할 때 문법서에서 이미 채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음의 ‘저, 답-, 노랑-’ 등의 그 예이다.

1인칭대명사 ‘저’: 저(저는, 저를, 저에게, 저도, 저만, 제(제가)

형용사 ‘답-’: 답-(답고, 답지), 더우-(더우면, 더워서)

형용사 ‘노랑-’: 노랑-(노랑고, 노랑지), 노라-(노라면), 노래-(노래서)

<우>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인칭대명사 ‘저’ (72, 485쪽)
- (13가)의 ‘짓-’의 활용을 보면 ‘짓다, 짓지’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서는 ‘짓-’이 유지되지만 ‘지어, 지으니’처럼 모음이나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ㅅ’이 탈락하여 ‘지-’로 나타난다. (112쪽)

여기서 “‘짓-’의 활용”이라는 표현에서 ‘짓-’은 이형태 ‘짓-, 지-’를 아우른 형태소를 가리킨다.

그런데 여러 문법서에서 용언을 대개 어미 ‘-다’를 붙인 ‘답다, 노랑다, 짓다’ 등으로 표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답-, 노랑-, 짓-’ 등의 표기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답다, 노랗다, 젓다’ 등의 표기도 ①과 ② 가운데서는 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언과 용언을 표기할 때 ②를 따르고 있다면 조사와 어미의 표기에서도 ②를 따르는 것이 일관성 있는 태도이다.

②를 따른다고 할 때는 어느 이형태를 대표형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때도 간결성을 고려해 더 짧거나 더 단순한 형태를 선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개모음어미의 두 이형태 가운데 ‘으’가 없는 형태가 짧고 단순하므로 더 간결하다. 즉 ‘-으니까, 으면, -은, -을수록, -음’보다 ‘-니까, -면, -ㄴ, -ㄴ수록, -ㄴ’이 더 간결하다. ‘이’계 조사도 ‘이’가 없는 형태가 더 간결하다. ‘이나, 이라도, 이야’보다 ‘나, 라도, 야’가 더 간결하다.

5) 변별성

간결성을 추구하다 보면 특정 문법요소의 표기가 다른 문법요소의 표기와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간결성은 높지만 소통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 문법요소들을 잘 구별할 수 있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소통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변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변별성은 흔히 간결성과 역방향으로 작용한다. 표기하는 모양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질수록 다른 문법요소의 모양과 구별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두 조건이 충돌한다면 변별성을 우선해야 한다. 간결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문법요소들을 서로 구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형사형어미 ‘-은/-ㄴ’을 간결성을 고려해 짧은 형태 ‘-ㄴ’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런데 ‘-ㄴ’은 구어소통이 불편해진다. 구어에서는 자음 ‘ㄴ’만을 발음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니은]이라고 발음할 수밖에 없다. 조사와 어미를 발음할 때 이 경우에만 자모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일관성을 해치는 일이다. 또 [니은]이라는 발음은 ‘ㄴ’이라는 글자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므

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문어소통에서도 ‘-ㄴ’은 어말의 ‘ㄴ’ 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다른 언어요소와 구별하기 더 쉬운 쪽은 ‘-은’이다. 즉 변별성의 면에서 ‘-ㄴ’보다 ‘-은’이 낫다.⁶⁾

조사와 어미가 모두 의존형태소이지만 조사에는 붙임표를 붙이지 않고 어미에만 붙임표를 붙이는 것이 여러 문법서가 따르는 관례이다. 이 관례를 따르면 동형(同形)으로 표기될 수 있는 조사와 어미를 붙임표 여부만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조사 ‘은/는/ㄴ’을 ‘은’으로 표기하고 어미 ‘-은/-ㄴ’을 ‘-은’으로 표기하면 둘이 혼동되지 않는다. 조사 ‘을’과 어미 ‘-을’도 마찬가지로 쉽게 구별된다.

한편 자립형태소에는 붙임표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조사와 동형으로 표기되어 혼동이 있을 수 있다.

조사 ‘나’ : 이나(말이나), 나(소나)

1인칭대명사 ‘나’ : 나(나는, 나를, 나에게, 나도), 내(내가)

조사 ‘만’ : 만(잠깐만)

의존명사 ‘만’ : 만(1년 만에)

수사 ‘만’ : 만(천 번 만 번)

조사 ‘도’ : 도(아무도)

자립명사 ‘도’ : 도(도를 댄다)

자립명사 ‘도’ : 도(경기도, 강원도)

자립명사 ‘도’ : 도(웃놀이에서 도가 나오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형태소의 품사, 의미, 용례 등을 병기하는 식으로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조사), 나(대명사)

6) 다만 중세한국어의 관형격조사 ‘ㅅ’은 어쩔 수 없이 이대로 표기하고 발음도 [시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조사), 만(의존명사), 만(수사)

도(조사), 도(도를 닦다), 도(행정구역), 도(웃놀이)

문법 서술에서는 다음과 같이 형태소 앞에 정체를 드러내는 수식어를 넣어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사 ‘나’와 대명사 ‘나’는 교체 양상이 다르다.

서로 다른 어미가 동형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연결어미 ‘-나’ : -으나(앉으나), -나(서나)

의문형어미 ‘-나’ : -나(앉나, 서나)

연결어미 ‘-니’ : -으니(앉으니), -니(서니)

의문형어미 ‘-니’ : -나(앉니, 서니)

연결어미 ‘-자’ : -자(앉자, 서자)

청유형어미 ‘-자’ : -자(앉자, 서자)

명령형어미 ‘-어라’ : -어라(먹어라), -아라(잡아라), -여라(하여라),
-라(지내라)

감탄형어미 ‘-어라’ : -어라(뵙어라), -아라(좋아라), -여라(하여라),
-라(날래라)

‘-나’와 ‘-니’의 경우에는 매개모음어미의 대표형을 ‘으’가 있는 쪽을 선택함으로써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연결어미 ‘-으나’ : -으나(앉으나), -나(서나)

의문형어미 ‘-나’ : -나(앉나, 서나)

연결어미 ‘-으니’ : -으니(앉으니), -니(서니)

의문형어미 ‘-니’ : -나(앉니, 서니)

연결어미 ‘-자’와 청유형어미 ‘-자’, 명령형어미 ‘-어라’와 감탄형어미 ‘-어라’는 교체 양상도 똑같으므로 형태로써 구별하기는 어렵다. 문법기능을 병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연결), -자(평서)

-어라(명령), -어라(감탄)

동형인 형태소들을 더 간결하게 구별하는 방식도 있다. 일련번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나1, 나2

만1, 만2, 만3

도1, 도2, 도3, 도4

-자1, -자2

-어라1, -어라2

그러나 이 방식은 문법서의 독자에게 일련번호라는 임의로운 기호를 기억해야 하는 부담을 준다는 면에서 전면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간결성을 위해 부분적으로나 임시적으로 사용할 만하다.

5. 표기의 실제

1) 조사와 어미의 표기원칙

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사와 어미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표기할 수 있다.

조사와 어미의 표기원칙

- ① 교체가 있는 경우 이형태 가운데 하나를 대표형으로 삼아 대표형만으로 표기한다. [예] 주격조사를 ‘이/가’ 또는 ‘가/이’로 표기하지 않고 ‘이’ 또는 ‘가’로만 표기한다.
- ② 장형과 단형이 교체하는 경우 장형을 대표형으로 삼는다. [예] 보조사의 두 이형태 ‘이야’와 ‘야’ 중에서 ‘이야’를, 연결어미의 두 이형태 ‘-으면’과 ‘-면’ 중에서 ‘-으면’을, 종결어미의 두 이형태 ‘-습니다’와 ‘-ㅂ니다’ 중에서 ‘-습니다’를 대표형으로 삼는다.
- ③ 자음 뒤 이형태와 모음 뒤 이형태가 교체하는 경우 자음 뒤 이형태를 대표형으로 삼는다. [예] 주격조사의 두 이형태 ‘이’와 ‘가’ 중에서 ‘이’를 대표형으로 삼는다. 보조사 ‘이야’, 연결어미 ‘-으면’, 종결어미 ‘-습니다’의 선택도 마찬가지이다.
- ④ 출현환경이 더 보편적인 이형태를 대표형으로 삼는다. [예] 연결어미 ‘-어도/-아도/-여도/-라도/-도’는 ‘-어도’를 대표형으로 삼는다. ‘-어도’가 가장 다양한 음운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 ⑤ 서로 다른 조사, 어미가 대표형이 똑같아지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문법기능을 병기해 구별한다. [예] 명령형어미 ‘-어라’와 감탄형어미 ‘-어라’는 대표형이 똑같으므로 ‘-어라(명령)’과 ‘-어라(감탄)’으로 표기한다.

②는 장형이 단형보다 변별성의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설정한 원칙이다.

③은 ②와의 조화를 고려한 결정이다. 자음 뒤 이형태가 장형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음 뒤 형태를 우대해야 할 다른 이유도 있다. 모음 뒤 이형태를 대표형으로 삼으면 관형사형어미 ‘-ㄴ’, 연결어미 ‘-ㄴ수록’, 종결어미 ‘-ㅂ니다’ 등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ㄴ’, ‘ㄹ’, ‘ㅂ’처럼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자음자가 포함된 예들이 적지 않다. 구어에서는 ‘-ㄴ’, ‘-ㄴ수록’, ‘-ㅂ니다’ 등을 각각 [니은], [리을쑤록], [비읍니다] 등으로 발음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발음은 청자의 관점에서 매우 어색하다.

④와 관련하여, 연결어미의 이형태 ‘-어도, -아도, -여도, -라도, -도’

중에서는 ‘-어도’가 자음 뒤 이형태이면서 출현환경도 가장 보편적이다. 우선 ‘-여도, -라도, -도’는 모음 뒤 이형태이다(하여도, 이라도, 아니라도, 기대도, 설레도). 또 ‘-여도’는 ‘하-’ 뒤에만, ‘-라도’는 ‘이-(지정사), 아니-’ 뒤에만 출현하므로 다양한 용언 뒤에 출현하는 ‘-어도, -아도’보다 덜 보편적이다. ‘-어도’와 ‘-아도’ 중에서는 선행 용언 끝 음절의 모음이 ‘ㄱ, ㄷ’일 때만 나타나는(잡아도, 줍아도, 보아도) ‘-아도’보다 그 밖의 여러 음운적 환경에 나타나는(접어도, 집어도, 굽어도, 비어도, 두어도, 뺏어도, 대어도, 데어도, 되어도, 뛰어도, 잡으셔도, 잡았어도, 잡겠어도) ‘-어도’가 더 보편적이다.

2) 조사와 어미의 표기의 예

이제 교체가 있는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표기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의 표기

표기	이형태	기능
이	이, 가	주격조사
을	을, 를, ㄹ	목적격조사
으로	으로, 로	부사격조사
과	과, 와	부사격조사
이라고	이라고, 라고	부사격조사
아	아, 야	호격조사
은	은, 는, ㄴ	보조사
이나	이나, 나	보조사
이야	이야, 야	보조사

어미의 표기

표기	이형태	기능
-었-	-었-, -왔-, -였-, -쓰-	선어말어미
-어서	-어서, -아서, -여서, -라서, -서	연결어미
-어라(명령)	-어라, -아라, -여라, -라	명령형어미
-어라(감탄)	-어라, -아라, -여라, -라	감탄형어미
-으시-	-으시-, -시-	선어말어미
-으니	-으니, -니	연결어미
-으나	-으나, -나	연결어미
-으면	-으면, -면	연결어미
-을수록	-을수록, -르수록	연결어미
-음	-음, -ㅁ	명사형어미
-읍시다	-읍시다, -ㅂ시다	청유형어미
-니	-으니, -니	의문형어미
-나	-나, -은가, -는가	의문형어미
-느니	-느니, -으니, -니	연결어미
-는다	-는다, -ㄴ다, -다, -라	평서형어미
-는구나	-는구나, -구나, -로구나	평서형어미
-는데	-는데, -은데, -ㄴ데	연결어미
-습니다	-습니다, -ㅂ니다	평서형어미
-으오	-으오, -오, -소	평서형어미

3) 변이형의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4장까지에서 비판한 여러 한국어문법서들과 달리 조사와 어미를 대표형으로 표기하여 변이형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다.

이익섭·임홍빈(1983)은 보조사 ‘은’를 서술하면서 첫 문장 “‘은/는’은 일차적으로 排他・對照의 의미를 나타낸다.”에서만 두 변이형을 보이고 제목과 본문에서 모두 ‘는’으로 표기를 통일했다(165~169쪽). 그러나 대표형으로 표기를 통일하는 이러한 태도가 책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격

조사 편에서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을/를’, 부사격조사 ‘와/과’는 변이형을 나열하고, 부사격조사 ‘으로’는 대표형으로 표기했다. 또 시제 편에서는 선어말어미 ‘-었-’을 대표형으로 표기한 데 반해, 문장의 접속 편에서는 연결어미 ‘-아/어도’와 같이 변이형을 나열하기도 하고 연결어미 ‘-았자, -으며, -으므로, -면, -되’와 같이 대표형으로 표기하기도 했다.⁷⁾

이익섭(2005)는 조사와 어미를 대표형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별 조사와 어미를 처음 다루는 곳에 각주를 달고 대표형 표기의 사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각주 몇 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13쪽: 역사적으로는 ‘이’가 먼저부터 쓰였고 ‘가’는 16세기 무렵에 발생하여 그후 ‘이’는 자음(받침) 뒤에, ‘가’는 모음 뒤에 쓰이게 되었다. 앞으로 ‘이’를 주격조사의 대표로 삼아 기술해 가겠다.
- 146쪽: ‘은’은 자음(받침)으로 끝나는 단어 다음에 쓰이고 ‘는’은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다음에 쓰인다. 앞으로 ‘은’을 대표로 삼아 쓴다.
- 175쪽: ‘-구냐’는 형용사 및 계사의 어간 다음에, 그리고 ‘-았-’, ‘-겠-’ 등의 선어말어미 다음에 쓰인다. 그리고 ‘-는구냐’는 동사 어간 다음에 쓰인다. 이 어미에서는 ‘-구냐’를 대표로 삼는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문제가 된다. 첫째, 제목에서는 “7.2. 은/는”, “-았/었-의 용법”과 같이 변이형을 나열했다. 이러한 태도는 명사형어미 ‘-음’이 붙은 절을 줄여서 “-음 명사절”이라 부르고 제목을 “14.4.2. ‘-음’ 명사절”로 붙이는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제목이야말로 대표형 표기의 필요성이 큰 텍스트이므로 “7.2. 는”, “-았-의 용법”이 바람직한 것이다.

둘째, 일관성을 잃은 표기가 있다. 선어말어미 ‘-었었-’을 246~248쪽의

7) 조사 ‘으로’, 어미 ‘-으며, -으므로’의 표기를 고려하면 ‘-면, -되’는 ‘-으면, -으되’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았었-’으로 표기한 반면 그 제목에서는 “10.4. ‘-었었-’의 용법”이라고 하여 ‘-었었-’으로 표기했다. 다른 모음어미들의 頭音節을 ‘아’로 표기했으므로 여기서도 제목에서의 표기를 ‘-았었-’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한편 270~274쪽에서는 ‘-아지다’ 대신 ‘-어지다’만을 사용하고 있다.

4) 한국어문법사전의 사례

위에서 제시한 조사와 어미의 표기원칙을 잘 적용한 예는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사용으로 편찬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검색』에서 볼 수 있다.⁸⁾ 『검색』은 일종의 한국어문법사전이다. 『검색』이 수록한 조사와 어미의 표제어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항목 사이의 쉽표를 생략한다.)

『검색』의 조사와 어미의 표제어 목록

조사

같이 과(1) 과(2) 까지 께 께서 대로(1) 대로(2) 도 마다 만 만큼 밖에 보고 보다 부터 뿐 아1
예(1) 예(2) 예(3) 예(4) 에게 에게로 에게서 에다카(1) 에다카(2) 에서(1) 에서(2) 에서부터 요 으로
(1) 으로부터 은1 을1 의 이 이고 이나(1) 이나(2) 이나(3) 이나마 이다1 이든 이든가
이라고 이란 이랑(2) 이랑(1) 이며 이면 이야 처럼 치고(1) 치고(2) 커녕 하고(1) 하고(2) 한테 한
테서

선어말어미

-겠 -(1) -겠 -(2) -었 - -었었 - -으시 -

연결어미

-거나(1) -거나(2) -거니와 -거든1 -게1 (2) -게1 (1) -고1 (1) -고1 (2) -고도 -고서

8)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검색』을 이하 『검색』이라 약칭한다. 『검색』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https://kcenter.kore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곳의 ‘일러두기’에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2013),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2014)에서 기술된 초급 문법·표현 항목 92개, 중급 문법·표현 항목 113개의 내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검색』을 개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색』과 거의 같은 내용을 종이책으로 출판한 것이 다음 네 책이다.

- 양명희 · 이선웅 · 안경화 · 김재욱 · 정선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 초급 어미』, 집문당, 2016.
- 양명희 · 이선웅 · 안경화 · 김재욱 · 유해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 초급 조사·표현』, 집문당, 2016.
- 양명희 · 이선웅 · 안경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 중급 어미』, 집문당, 2016.
- 양명희 · 이선웅 · 김재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 중급 조사·표현』, 집문당, 2016.

-고자 -기에 -느라고 -는다거나1 -는다고 -는다면 -는데1(1) -는데1(2) -다가1
-다가2 -다시피 -더니(1) -더니(2) -더니(3) -더라도 -던테1 -도록(1) -도록(2) -든
지1 -듯이 -어다가 -어도 -어서(1) -어서(2) -어야(1) -어야(2) -어야지1 -있더니(1)
-있더니(2) -있더니(3) -으나 -으니1(1) -으니1(2) -으니1(3) -으니까(1) -으니까(2)
-으러 -으려고 -으려야 -으면 -으면서 -으므로 -자마자 -지만

전성어미

-기 -는1 -던 -은2 -은3 -을2 -음

종결어미

-거든2 -게2(1) -게2(2) -고2 -고3 -나요 -네 -는구나 -는군 -는다 -는다니
-는다면서 -는데2 -니1 -더군 -더라 -던테2 -습니까 -습니다 -어1(1) -어1(2)
-어1(3) -어1(4) -어라 -어야지2 -으세요(1) -으세요(2) -으세요(3) -으십시오 -을
걸 -을게 -을까(1) -을까(2) -을래(1) -을래(2) -읍시다 -자1 -잖아 -지(1) -지(2)

이 표제어 목록은 위에서 본 표기원칙을 잘 따르고 있다. 한국어문법서들에서 최근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사전에서는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교사가 학습자에게 한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조사와 어미의 표기가 정돈되어 있지 않다면 학습자와 교사 모두가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그러한 교육현장에서의 요구가 문법사전의 표제어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추어 생각하면 한국어문법서들은 연구자들의 좁은 시야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검색」에도 개선할 점들이 있다.⁹⁾ 첫째, 일련번호 사용법에 문제가 있다. 위의 표제어 목록에 ‘-는1’이 있지만 ‘는2, -는2’ 같은 것은 없다. 따라서 ‘-는’에 번호 ‘1’을 붙일 이유가 없다. 그런데 검색창에 표제어 ‘는’을 입력해 검색하면 검색결과와 처음에 ‘-는1, 는2’가 나온다. ‘는2’는 보조사 ‘은1’의 이형태로 풀이되어 있다. ‘은1’의 <형태 정보>의 ②에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는’을 쓴다.”라는 설명이 있다. 검색결과와 ‘는2’는 여기서의 ‘는’을 가리킨다. 이 ‘는’ 때문에 ‘-는’에 번호 ‘1’을 붙였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는’은 형태소이고 ‘는’은 이형태로서 둘의 위상이 다르므로 같은 일련번호 체계를 적용할 수 없다. 3장의 달의 비유를 다시 가져오면, 태양계의 위성들에 일련번호를 하나씩 붙일 때 초승달, 반달, 보름

9) 「검색」은 표제어 항목의 설정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두 가지만 언급해 두는 것으로 그친다. 첫째, ‘-네요, -어요, -지요’ 등을 종결어미로 기술하지 않으면서 ‘-나요’를 종결어미로 설정해 일관성을 잃었다. 둘째, ‘-잖아’를 종결어미로 독립시킴으로써 ‘-잖나, -잖냐, -잖은가, -잖소, -잖습니까’ 등을 일괄하여 기술하지 못하고 있다.

달, 포보스, 데이모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트 등을 각각 ‘위성1, 위성2, 위성3, 위성4, 위성5, 위성6, 위성7, 위성8, 위성9’ 등으로 칭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둘째, 표제어에 붙은 일련번호가 고정되지 않아 일관성을 잃은 예들이 많다. ‘-는1’의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는1’을 ‘-는1’ 대신 ‘-는’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는2’로 표기하기도 한 예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는2’는 ‘-는1’의 오류인 듯 보인다.)

- <의미와 용법> ‘-는’ 앞에 오는 동사와 형용사 등을 관형사형으로 바꾸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한다.
- <의미와 용법> 한국어는 동사나 형용사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려면 ‘-는, -은, -을’과 같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필요하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2’는 현재 일어나는 행위를 나타내며 동사 뒤에만 결합한다.
- <도입> ‘-는2’를 도입할 때는 (1)에서와 같이 학생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에 대해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학생이 ‘좋아하-’에 ‘-는’을 결합하고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을 뒤에 붙여 동사에 ‘-는’을 붙여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확장> ①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내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면 ‘-는’을 사용한다.

셋째, 각 표제어에 대한 풀이에서 조사와 어미의 표기가 일관성을 잃은 예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조사 표제어의 풀이에서 몇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도 <확장> ① ‘께서, 예, 에게, 와/과, 로’ 등과는 같이 쓸 수 있다.
- 보다 <문장 구성 정보> ② 서술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 경우 ‘N1+이 N2+보다 N3+를 V’ 또는 ‘N1+이 N3+를 N2+보다 V’의 구성으로 사용하여도 뜻이 같다.
- 을 <문장 구성 정보> ① ‘을/를’이 행위의 대상을 나타낼 때는 주로 ‘사다,

먹다, 보다, 만들다, 쓰다, 부르다' 등과 같은 타동사와 함께 쓰인다.

- 커녕 <유사 문법> ① '커녕', '는 고사하고', '는 말할 것도 없고'

‘도’의 풀이에서 ‘와/과, 로’를 ‘과, 으로’로, ‘보다’의 풀이에서 ‘N3+를’을 ‘N3+을’로, ‘을’의 풀이에서 ‘을/를’을 ‘을1’로, ‘커녕’의 풀이에서 ‘는’을 ‘은1’로 고쳐야 한다.

조사 ‘은1’의 <유사 문법> ① ‘은1’, ‘이’에 대한 풀이는 표기의 비밀관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 ‘이/가’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예문을 이용하여 문장 전체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은/는’은 자기소개를 할 때, 사물의 명칭을 지칭할 때, 주제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되므로 이러한 예문을 사용하여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주격조사 ‘이’와 보조사 ‘은’을 헷갈리는 것은 보조사 ‘은’이 주어 자리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은 주어 자리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빵을 먹는다.’처럼 목적어 자리에도 오고 ‘교실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요.’처럼 부사어 자리에 오며 부사격조사와의 결합도 자유롭다.
- ‘은’은 대조(중립적 배제), 주제, 구정보임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는 대조의 기능이나 주제의 기능은 없고 신정보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 ‘이’를 사용하는 것이 신정보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 내포절에는 ‘은/는’이 사용되지 않는다. 내포절의 주어는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포절 안에서 ‘은/는’이 대조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은/는’을 사용한다.

예) 내 반에는 (국어는 좋아하지만 수학은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o)

위에서 주격조사 ‘이’와 보조사 ‘은1’의 표기가 각각 ‘이, 이/가’, ‘은, 은/는’으로 아무 이유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자잘한 문제들을 제외하면 『검색』의 조사와 어미의 표기는 한국어문법서들에 비해 아주 훌륭하다. 한국어문법서들도 본문을 서술하기 전에 조사와 어미의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작업을 한다면 조사와 어미의 표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은 『검색』과 마찬가지로 국립국어원에서 벌인 사업의 결과물이므로 『검색』의 목록을 바탕으로 문법서술을 했더라면 조사와 어미의 표기가 한결 나아졌을 것이다.¹⁰⁾

6. 마무리

언어학은 언어에 관해 언어로써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언어와 메타언어를 잘 구별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한국어문법서에서는 대상언어의 중심에 있는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요소를 잘 표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문법요소들은 형태의 교체를 보일 때가 많으므로 소통의 혼란을 줄이는 정연한 표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최근에 발행된 문법서들조차 조사와 어미의 표기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어문법서에서 문법요소를 표기할 때 표기의 대상은 문법요소 자체이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소를 표기하려고 할 때 그 형태소의 이형태를 표기해서는 안 된다. 그 형태소를 대표하는 표기를 정해 놓고 그 대표형으로써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가 붙은 어절 ‘장미가’, ‘색이’의 문법구조를 ‘장미-가’, ‘색-이’가 아닌 ‘장미-이’, ‘색-이’처럼 표기해야 한다.

문법요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https://kcenter.korean.go.kr/>)의 『교수 자료 검색』에서 검색창에 ‘는다’를 입력해 검색하면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각종 한국어교재류의 내용 74건이 검색된다(2020년 1월 20일 기준). 이 항목들 가운데 종결어미 ‘-는다’의 표기가 ‘-다(평서문의 문어체 종결형): -ㄴ/는다, -다, ‘-다/는다/ㄴ다’, ‘-(ㄴ/는)다’ 등으로 교재마다 다름을 볼 수 있다. ‘-는다가 들어 있는 문법요소의 표기도 ‘-는다면’, ‘-ㄴ/는다면’, ‘-ㄴ/는다면, -다면’ 등으로 일정치 않다. 교사나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 일관성: 한 문법요소는 한 가지 모양으로만 표기한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교체하는 문법요소들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정확성: 문법요소의 교체방식을 정확히 고려하여 표기한다.
- 소통성: 적기 쉽고 알아보기 쉬운 표기, 그리고 오해의 가능성이 없는 표기를 지향한다.
- 간결성: 표기한 모양이 짧고 단순한 쪽을 지향한다.
- 변별성: 문법요소들끼리 잘 구별되도록 표기한다.

이상의 조건들을 고려한 조사와 어미의 표기원칙은 이렇다. 이형태 가운데 하나를 대표형으로 정해 표기하되, 장형, 자음 뒤 이형태, 출현환경이 더 보편적인 이형태를 대표형으로 삼는다. 대표형이 동형(同形)인 경우에는 문법 기능을 병기해 구별한다.

과거의 한국어문법서들에서도 이러한 표기를 향한 노력이 일부 있었으나 완전한 모습을 보여 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한국어문법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검색』에서의 조사와 어미의 표제어 표기가 꽤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교육이라는 실용적 상황이 문법요소의 표기를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표제어에 붙인 일련번호나 각 표제어에 대한 설명에서는 여전히 표기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에서 조사와 어미는 문법서술의 출발이다. 이들의 수가 많고 이들이 가진 기능들도 복잡하게 얹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한국어문법을 잘 서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 일의 첫 과업이 이들의 표기를 정돈하는 일이다. 그동안 많은 한국어문법서들이 나왔지만 학습자나 일반인에게서 한국어문법이 어렵다는 인식을 견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첫 과업부터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개정판, 집문당, 2018.
- 구본관·이선웅·이진호·박재연·황선엽, 『한국어 문법 총론』 1, 집문당, 2015.
-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웅, 『표준 국어문법론』, 전면개정판, 한국문화사, 2019.
- 양명희·이선웅·안경화·김재욱·정선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초급 어미』, 집문당, 2016.
- 양명희·이선웅·안경화·김재욱·유해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초급 조사·표현』, 2016.
- 양명희·이선웅·안경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중급 어미』, 2016.
- 양명희·이선웅·김재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중급 조사·표현』, 집문당, 2016.
-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2018.
-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5.
- 이익섭·임홍빈, 『국어문법론』, 학연사, 1983.

The notation of particles and endings in Korean grammars

Bae Juchae*

The notation of particles and endings in Korean grammars is very important. But even recent Korean grammars have serious drawbacks.

What to be presented in grammars is not the variants of grammatical elements but grammatical elements themselves. And the notation of grammatical elements should meet some qualifications; consistency, accuracy, communicability, brevity, and distinctiveness.

The principles of the notation are as follows. The representative form out of the allomorphs is chosen which is long-formed, post-consonantal, and wider in distribution. The grammatical function should accompany the representative form that is identical to another grammatical element in shape.

Search for Contents of Grammar and Expressions in Korean Education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a Korean grammatical dictionary has quite a good notation of particles and endings in its headwords. But disorganized cases are found in many entries of it.

Key words: Korean grammar, particle, ending, representative form, notation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16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8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19일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